

부활절 다섯 번째 / 어머니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0년 5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새 36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2 번 어버이주일(Parent's 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9:1-15	박경림 집사
-------------------------	--------------------------	--------

설 교 Sermon	“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김일선 목사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기에(You Raise Me Up)” (플룻: 고영인 교우,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찬 송 Hymn	492 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 435)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는 완고함과 용서와 화해조차도 우리가 결정하려는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정작 사랑해야 할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했으며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진정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글개역 **히9:15**)

“For this reason Christ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that those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 now that he has died as a ransom to set them free from the sins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NIV **Hebrews 9: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0 (주일)	5/11 (월)	5/12 (화)	5/13 (수)	5/14 (목)	5/15 (금)	5/16 (토)
	민20	민21	민22	민23	민24	민25	민26
본문	시58,59 사9:8-10:4	시60,61 사10:5-34	시62,63 사11,12	시64,65 사13	시66,67 사14	시68 사15	시69 사16
	약3	약4	약5	벧전1	벧전2	벧전3	벧전4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5/13수 오후7:30)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14:1-12)
-----------------------	---------------------------------

지난 주일(5/3) 말씀

“그 후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히 8:1-13)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다름 아닌 '우리(나) 중심의 생각(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신본주의)'으로 바뀌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Divine Perspective)'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New Covenant)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언약이 무엇인지? 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New Covenant)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에 세울 언약(즉, 새 언약)은 1)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새기시는) 언약이며(히8:10), 2)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언약이며(히8:11), 3)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입니다(히8:12). 즉, 1)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말씀)이 새겨지며, 기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되며, 2)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3)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하심(Redemption)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